기니 비사우 소식지 2022-1 호

이근욱 조영희 선교사

e-mail: kwleesss@gmail.com

phone: +245 956 838393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선교하는 현지교회와 리더 세우기 (행 1:8)

샬롬! 멀리 서부 아프리카 기니 비사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1 **현지 소식:** 지난 2 월 1 일 이 나라 수도 비사우에서 구테타가 일어나 국제 뉴스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결국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저지른 대통령의 자작극으로 일달락된 것으로 나라 안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1973 년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이후 여러 차례의 내전과 폭동, 구테타로 인해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대통령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현 정부도 무슬림 세력을 등에 업고 지탱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과 권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존속하다보니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과 빠르게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의료 봉사와 의료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2 **사역 소식:** 저희가 섬기는 현지인 교회는 지난 해 말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나 건물주의 비상식적인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로 3 개월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담임 목사 부부의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며 가난을 탓하여 헌금과 십일조 생활을 하지 않는 현지 교인들을 보면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까뚱고 마을에 갔는데





네네 목사님은 유치원의 첫 학생들을 뽑아서 입학식을 했고 저는 의대 졸업생과 함께 그 동네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채크하였습니다. 이번 방문때 그 마을의 촌장과 두 명의 자원 봉사 후보생들을 만나 앞으로 제가 이 마을을 매월 방문해 이 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follow-up 을 하면서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들이 원하는 것은 외국인이 들어와 병원이나 클리닉을 짓고 단기 의료팀들을 통해서 약품과 검사, 치료, 돈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에 치료를 위주로 하는 의학에서 위생 교육을 통한 생활 개선과 질병 예방을 가르쳐 저들이 최대한 스스로 위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공중보건 봉사자를 양성하는 길은 분명히 시간이 더 걸리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교제하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주신 많은 잠재력을 발견하여 이 마을의 고질적인 질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감동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3 **기타 소식:** 소망하는 사역 중 하나인 의대 재학생, 졸업생 교육을 통한 리더 양성에 필요한 병원 실습을 위해서는 이 나라 의사면허증이 필요한데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속이 길고 공무원들의 부정 행위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도제목:

1. 기니 비사우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2. 까뚱고 마을의 지역 보건 봉사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3. 이 나라 의사 면허증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4. 저희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늘 깨어 기도하도록.